

1회차 · 80분

AI가 처음이라면

알파고 이야기부터, 오늘 당장 써보는 것까지

오늘 다룰 것

여섯 가지

01

알파고에서 지금까지

02

AI가 무엇인가

03

무엇이 좋아지나

04

처음 써보기

05

원하는 답을 얻는 법

06

조심할 것

01

알파고에서 지금까지

그 사건 이후 6년간 아무것도 안 바뀐 이유

2016년 3월, 서울

이세돌 9단 vs 알파고

3월 9일부터 15일까지, 전국이 이 대국을 봤습니다.

-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봤습니다
-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지가 궁금해서였습니다

4 : 1

알파고 승

다섯 판 중 네 판

4국 · 78수

신의 한 수

알파고가 사람에게 진 유일한 공식 기록입니다.

- 판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수였습니다
- 알파고는 79수에서 실수했고, 87수가 되어서야 밀리는 걸 알아챘습니다

1 / 10,000

사람이 그 수를 둘 확률

알파고의 계산

그런데 그 뒤 6년, 무엇이 바뀌었습니까?

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이 알파고 때문에 바뀐 게 있습니까?

알파고는 바둑만 두는 기계였기 때문입니다

바둑판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.

이메일을 써달라

못 함

회의록을 정리해달라

못 함

계약서를 검토해달라

못 함

바둑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알파고는 “대단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”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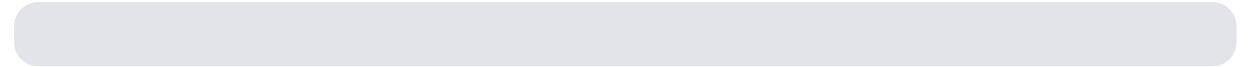
2022년 11월

이번에는 달랐습니다

출시 두 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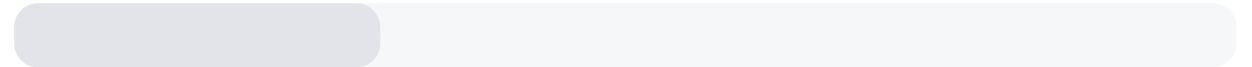
인스타그램

약 2년 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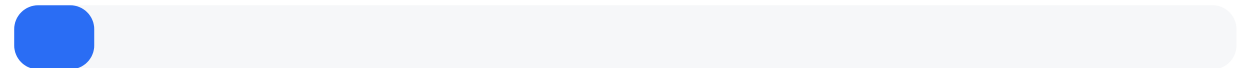
틱톡

약 9개월



ChatGPT

약 2개월



기술이 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

쓸 수 있는 사람이 달랐습니다.

알파고

잘하는 것

바둑

쓸 수 있는 사람

바둑 두는 사람

필요한 준비

바둑을 알아야 함

나와의 관계

구경거리

지금의 AI

잘하는 것

✓ 말과 글

쓸 수 있는 사람

✓ 글을 다루는 모든 사람

필요한 준비

✓ 한국어로 말할 줄 알면 됨

나와의 관계

✓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도구

가장 흔한 오해

“알파고가 이겼으니 AI는 사람보다 똑똑하다”

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AI를 잘못 쓰게 됩니다.

알파고

다루는 문제
규칙이 명확 (바둑)

정답
있음

틀릴 때
계산 착오

지금의 AI

다루는 문제
✓ 규칙이 없음 (좋은 글이란?)

정답
✓ 없음

틀릴 때
✓ 그럴듯하게 지어냄

지금 AI는 천재가 아니라 **아주 부지런한 조수**입니다.

2024년

같은 해에 노벨상 두 개가 AI로 갔습니다

하나였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, 두 개는 다릅니다.

2024

노벨 물리학상

존 홉필드 · 제프리 힌턴

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기초를 세운 발견과 발명

2024

노벨 화학상

데미스 허사비스 · 존 점퍼 · 데이비드 베이커

딥마인드 뮌은 AlphaFold를 이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

AI가 연구를 거드는 도구를 넘어 **과학적 발견이 일어나는 자리** 쪽으로 넘어왔다는 신호입니다.

이 사례가 말하는 것

정답이 정해진 게임에서, 정답이 열려 있는 문제로

AlphaFold가 예측한 단백질 구조는 전 세계 연구자에게 공개됐습니다

신약과 효소 연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

알파고는 규칙과 승패가 있는 게임을 풀었습니다

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, 이 회의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는 채점표가 없습니다

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AI를, **조직의 일상 업무에서 쓸 수 있게** 만드는 것이 HyperTeams Connect가 하는 일입니다.

02

AI가 무엇인가

검색과 무엇이 다른지부터

한 줄로 하면

사람이 쓴 글을 아주 많이 읽고, 다음에 올 말을 잘 맞히게 된 프로그램

의식이 있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.

같은 상황, 두 도구

엑셀에서 사번으로 부서를 찾고 싶습니다

검색

엑셀 vlookup 사용법

- VLOOKUP 완벽 정리 — 블로그
 - 기초부터 실전까지 — 유튜브
 - 오류 해결 7가지 — 카페
- 읽고, 고르고, 내 표에 맞게 바꾸기

AI

A열에 사번, B열에 이름, C열에 부서가 있어요. 사번을 넣으면 부서가 나오게 하려면?

`=VLOOKUP(A2, 직원명부!A:C, 3, FALSE)`

→ 내 상황에 맞춘 답

검색은 찾아주고, AI는 만들어줍니다

도서관 색인과 사서의 차이입니다. 색인은 위치를 알려주고, 사서는 내 질문에 맞게 정리해 답합니다.

03

무엇이 좋아지나

하루 업무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

공통점

사람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두 지점

AI가 잘하는 곳이 정확히 여기입니다.

- 빈 화면 앞에서 첫 줄을 쓰는 것
- 긴 것을 끝까지 읽는 것

1을 10으로 다듬는 일과 맞는지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이
낫습니다.

긴 글을 짧게

12장 계약서에서 볼 곳만

첫 줄 쓰기

사과 메일 초안

흩어진 것 정리

회의 메모 → 표

외국어

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메일

막막할 때

아이디어 10가지

예시 · 12장짜리 계약서

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, 시간을 쓸 곳을 정해준 것

대금 지급 (제7조) — 검수 후 60일. 일반적인 30일보다 길니다.

계약 해지 (제12조) — 상대방만 30일 전 통보로 해지 가능. 우리 쪽 조건은 없습니다.

손해배상 (제15조) — 배상 상한이 없습니다.

12장을 다 읽는 대신 **어디를 봐야 하는지** 알고 그 부분만 확인합니다.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.

04

처음 써보기

지금 노트북을 열어주세요

따라 하기

첫 대화 세 단계

1

말 걸어보기

내 직무를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일
5가지를 물어봅니다

>

2

되물어보기

“세 번째 것을 자세히” — 앞 대화를 기억합니다

>

3

일 시켜보기

메일 초안, 긴 글 요약, 표 정리 중 하나

사람에게 말하듯 쓰세요. 검색어처럼 줄이지 않습니다.

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

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.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

너무 길다

“절반 길이로 줄여주세요”

너무 딱딱하다

“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”

내 상황과 안 맞다

“우리는 (상황)이라 그건 안 됩니다”

무슨 말인지 모르겠다

“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”

요령

같은 일을 시켜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

AI는 내가 알려준 것만 압니다. 짧게 물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답이 나옵니다.

구체적으로

무슨 보고서인지, 누구에게, 얼마나 길게

상황 알려주기

“작년에 이걸 해봤는데 안 됐다”가 특히 효과적

예시 하나 주기

설명 열 줄보다 정확합니다

05

조심할 것

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알면 더 편하게 씁니다

한계 1

그럴듯하게 지어냅니다

틀린 답이 맞는 답과 똑같이 자신 있게 나옵니다. 말투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.

- 존재하지 않는 책 제목이 저자·연도까지 붙어 나옵니다
- “모르겠다”보다 답의 형태가 더 자연스러운 이어짐이기 때문입니다

질문

우리 회사 2023년 매출이 얼마였지?

답변

2023년 매출은 약 47억원입니다.

AI는 내 회사 매출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숫자가 나왔습니다.

안전한 사용과 위험한 사용

내가 준 내용을 가공하는 일은 안전하고, AI가 없는 정보를 채워야 하는 일은 위험합니다.

다시 하면 됨

그냥 씁니다

- 글 다듬기
- 요약 · 번역
- 아이디어 목록

돈 · 신뢰 · 법이 걸림

반드시 확인합니다

- 숫자 · 날짜 · 통계
- 사람 이름 · 책 · 법 조항
- 대외 발송 문서

실습 · 20분

같은 일을 세 번 시켜 비교하기

똑같은 일을 세 번 시키면서 요령을 한 번에 하나씩만 엿습니다. 어느 것이 실제로 답을 바꾸는지 눈으로 봅니다.

1

맨몸으로

평소 검색하듯 던집니다. 대개 “그대로 보낼 수 없음”이 나옵니다

2

상황을 붙여서

받는 곳 · 사유 · 새 일정. 다섯 요령 중 이 하나가 절반을 합니다

3

형식까지

문장 수 · 첫 문장과 끝 문장 · 쓰지 말 표현

4

나란히 채점

고칠 곳 2군데 이하면 “쓸 만함”

정리

오늘 가져가실 것

- 1 검색은 찾아주고, AI는 만들어줍니다
- 2 사람에게 말하듯 쓰고, 상황을 알려주고, 마음에 안 들면 고쳐 말합니다
- 3 AI가 초안을 만들고, 사람이 판단합니다
- 4 틀렸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로 확인 여부를 정합니다

다음 회차

개인에서 조직으로

한 사람이 잘 쓰는 것과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 대부분의 조직이 그 사이에서 멈춥니다.

가이드에서 이어 읽기 · </guide>